

대학생의 가해 관련 심리·행동적 특성과 대인관계회복간의 관계: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 탐색 연구*

김 수 경¹⁾

박 종 효²⁾

건국대학교 교직과

본 연구는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개인이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대인관계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연구모형이 실증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25명(여성 57.9%, 대학원생 14.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자신의 잘못을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응답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등 32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393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수용, 죄책감과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진정한 자기용서는 피해자와 화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였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정한 자기용서의 학술적 시사점과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정한 자기용서, 화해소망, 타인이해, 타인신뢰, 매개효과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함.

1)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강사

2)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E-mail : jonghyop@konkuk.ac.kr)

I. 서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상호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하는 능력은 성인기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타인과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Levy & Blatt, 1999). 특히 청년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걸쳐 있는 대학생은 정체감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이후의 대인관계 발달 및 인격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Horowitz, 1996).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거나 혹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상처 그 자체보다 대인관계에서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지가 더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나 상처는 오히려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상처와 피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시도들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용서(김기범, 임효진, 2006; 오영희, 1995, 2004; 박종효, 2012), 회복적 생활교육(강인구, 김광수, 2015; Amstutz & Mullet, 2005)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잘못이나 갈등상황에서 상

처받고 고통 받는 피해자의 반응에 집중하고 피해자의 상처치유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해왔다. 그에 반해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 이후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연구에 비하여 더 적었고, 관련 연구자들도 가해자나 가해행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Griffin et al., 2016).

가해자에 관한 연구의 부족은 가해행동의 재발방지를 돕는 대처나 예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누군가의 권리나 가치를 침해하는 잘못의 재발방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심리적 대처방법 중 하나는 자기용서이다. 자기용서는 용서의 한 유형으로서 자기비난이나 자기처벌과 같은 해로운 동기를 줄이고 자신에게 자애로운 행동을 증가하게 하는 동기변화이다(Hall & Fincham, 2005).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책임을 수용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자의식 정서(예, 죄책감)를 경험하는 일련의 심리과정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

특히 자기용서는 거짓된 자기용서와 진정한 자기용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자기용서가 아닌 거짓 자기용서가 있다(박종효, 김수경, 2017).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거짓 자기용서라고 할 수 있다(Wenzel, Woodyatt, & Hedrick, 2012). 거짓 자기용서는 가해자의 자기비난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줄여주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욕구는 부족하다(Woodyatt & Wenzel, 2013). 따라서 거짓 자기용서는 이후에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할 수 있으며 스스

로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

그에 반해 진정한 자기용서는 잘못을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획득된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점을 갖게 할 뿐 아니라(김수경, 박종효, 2019), 더 나아가 피해 입은 사람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김수경, 2019). 따라서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기용서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내려놓고 잘못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관점 및 태도의 긍정적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진정한 자기용서를 이끄는 심리·행동적 특성

거짓 자기용서와 구별되는 진정한 자기용서는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적 선행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자기용서의 선행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연구자가 가정한 이론 모형으로서 아직까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먼저 자기용서의 선구자인 Hall과 Fincham(2005, 2008)은 가해심각도, 공감, 죄책감과 보상행동 변인들을 자기용서의 선행요인으로 상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자신의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이후로

Ranganathan와 Todorov(2010) 역시 공감, 죄책감 그리고 보상행동을 자기용서의 선행요인으로 가정하여 자기용서 과정을 구현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Wohl과 McLaughlin(2014)가 자기용서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자기용서의 선행요인들을 살펴보면, 거짓 자기용서와 구분되는 진정한 자기용서의 중요한 인지적 요인은 책임수용이다. 책임수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Hall & Fincham, 2005; Holmgren, 1998, 2002).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도록 돕는 정서적 요인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죄책감을 들 수 있다.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과 관련하여 후회의 감정을 경험하고 반성하고자 하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친사회적 동기를 촉진해준다(Hall & Fincham, 2005; McConnell, 2015; Ranganathan & Todorov, 2010; Strelan, 2007; Zechmeister & Romero, 2002). 행동적 요인으로서는 보상행동이 있다. 보상행동은 잘못된 행동을 한 개인이 피해자가 피해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행동, 예를 들면 용서구하기, 재발방지약속, 배상하기 등을 들 수 있다(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Fisher & Exline, 2006; Hall & Fincham, 2005).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김수경과 박종효(2019)는 진정한 자기용서를 이끄는 가해자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 변인을 책임수용, 죄책감, 보상행동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선행요인이 진정한 자기 용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에 대한 선행요인과 모형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국내에서

진행된 진정한 자기용서에 대한 탐색적 연구(박종효, 김수경, 2017; 김수경, 박종효, 2019)와 Hall과 Fincham(2005, 2008) 그리고 McConnell(2015)연구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진정한 자기용서가 대인관계회복에 미치는 영향

초기에는 연구자들이 자기용서를 죄책감, 수치심, 자기분노, 자책 그리고 자기혐오와 같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돕는 잠재적인 치료 도구로서 관심을 가졌다(Hall & Fincham, 2008; Wohl, DeShea, & Wahkinney, 2008). 자기용서는 자신을 쉽게 용서하려는 자기중심적인 경향과 타인의 안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한 것과 관련 있다고 여겨져서, 피해자가 회복되도록 돕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Tangney, Boone, & Dearing, 2005). 이러한 우려는 초기 자기용서가 책임 수용이나 죄책감 경험 등과 같은 일련의 선행요인을 거치지 않은 거짓 자기용서와 혼재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된 것과 관련 있다(박종효, 김수경, 2017; Tangney et al. 2005). 책임수용이나 죄책감, 보상행동과 같이 진정한 자기용서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충실하게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진정한 자기용서는 가해자의 개인 내적 회복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화해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회복을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타인의 의도, 감정, 행동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화해 소망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고 싶어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타인이해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 행동, 생각, 감정 등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타인신뢰는 주요한 타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가해자가 경험하는 신뢰정도를 말하며 향후 자신에게 적어도 부정적인 해를 주지 않을 것에 대한 개인의 기대나 믿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자기용서가 가해자의 부정적 정서의 감소와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개인 내적회복기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을 수용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기용서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의 안녕만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거나 신뢰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Pelucchi, Paleari, Ragalia, & Fincham, 2013, 2015; Pelucchi, Paleari, Ragalia, & Karremans, 2015).

가해자는 진정한 자기용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 화해를 원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처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가해자의 대인관계 회복에 대한 열망은 피해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타인들과의 관계까지 확장될 수 있다.

Shnabel와 Nadler(200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 받았을 때 화해하고자하는 욕구가 높아

졌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지각했을 때 화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진정한 자기용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화해 노력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피해자의 화해 수용은 가해자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선 순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로서(이수원, 1994), 개인의 삶의 만족, 그리고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이기쁨, 노혜경, 2018). 진정한 자기용서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피해를 대면하게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자기용서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속죄가 피해자의 인지와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가해자를 용서해주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해주며(Exline, Root, Yadavalli, Martin, & Fisher, 2011; McConnell, Dixon, & Finch, 2012; McCullough, Worthington, & Rachel, 1997, McCullough et al. 1998; Pelucchi, Palcari, Ragalia, & Fincham, 2015), 이러한 가해자의 노력들이 피해자가 경험하는 분노감정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Gilbert & Woodyatt, 2017).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 행동, 생각 그리고 의도를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asbult, Hannon, Stocker, & Finkel, 2005; Pelucchi et al., 2015).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해 경험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자산이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개인이 갖고 있는 타인 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나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Kramer & Carnevale, 2001). 잘못된 행동은 상호간의 신뢰나 공동체 규범을 깨트리게 만든다(박종효, 2012; Rasbult et al., 2005).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추하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Barber, Maltby, & Macaskill, 2005). 이러한 가해자의 사고는 관계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며(Witvliet, Hinman, Brandt, & Exline, 2011), 다른 사람들 또한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등 대인관계 신뢰부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자기용서가 타인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는 가정되었으나(Pelucchi et al., 2013, 2015),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가해자의 진정한 자기용서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는 추후 대인관계의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Allen, 2001; Brown & Ashman, 1996). 또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기본전제인 만큼,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정한 자기용서와 대인관계 신뢰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자기용서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표적인 경험연구는 다음과 같다(Carpenter, Carlisle, Tsang, & Willett, 2016;

Pelucchi et al., 2013, 2015). 먼저 Pelucchi와 그의 동료들(2013, 2015)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100명 이상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에게 잘못을 한 것을 떠올리게 한 후, 자기용서 수준과 연인관계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기용서를 한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대방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용서가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포용하려는 태도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인관계 신뢰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Carpenter와 그의 동료들(2016)은 153명의 대학생과 온라인에서 모집한 502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잘못된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기용서를 한 사람들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신의 잘못에 몰입되어 자기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철회하고 싶어 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진정한 자기용서야말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진정한 자기용서는 피

해자와 화해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기용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해자 스스로의 내적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다(심혜선, 김지현, 2013; Davis et al. 2015; Fisher & Exline, 2006). 자기용서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넘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기용서의 과정을 겪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화해를 소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가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책임수용과 죄책감은 보상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기용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책임수용, 죄책감과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화해소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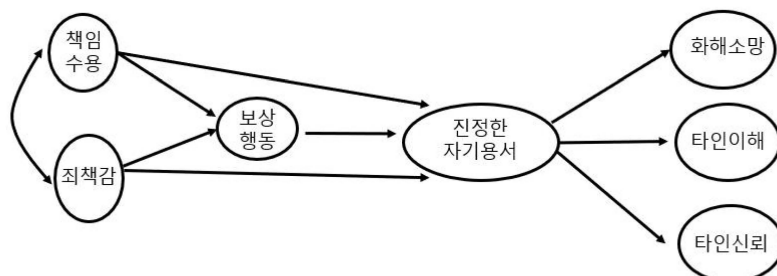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연구가설 3. 책임수용, 죄책감과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타인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책임수용, 죄책감과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타인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경계열은 59명(15.0%), 예체능계열은 46명(11.7%), 의학보건계열은 2명(0.5%)이었다. 교육 정도는 4년제 대학교 재학은 336명(85.5%), 대학원 재학은 57명(14.5%)이었다.

2. 측정도구

진정한 자기용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Woodyatt와 Wenzel(2013)의 자기용서 척도(Differentiated Process Scale of Self-Forgiveness)를 박종효와 김수경(201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정한 자기용서 7문항, 거짓 자기용서 7문항, 처벌적 자기용서 6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기용서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예: 잘못을 저지른 이후로, 나는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나의 잘못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DPSSF 문항 평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0점)부터 ‘매우 동의함’(6점)까지 7점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박종효와 김수경(2017)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이었다.

책임수용

본 연구에서는 책임수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Wenzel, Woodyatt와 Hedrick(2012)이 개발하고 김수경(2019)에서 번안한 책임수용척도(Responsibility Accept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수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기 학생보다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도덕성이 충분히 완성되어간다고 보는 성인기 연령의 대상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목표 표집하였다. 서울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배포한 430부의 설문지 중 425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설문조사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관계 그리고 그때의 마음상태를 떠올리게 한 뒤, 피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잘못의 유형, 상대방의 상처정도를 응답하게 했다.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자신의 잘못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표기한 자료 7부와 다변량 자료 검증에서 이상치를 보인 자료 25부를 제외한 최종 39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2.24세($SD=5.14$)였고, 이 중 여성은 246명(62.6%), 남성은 147명(37.4%)이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388명(98.7%)이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5명(1.3%)이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은 74명(18.8%), 교육계열은 91명(23.2%), 자연공학계열은 121명(30.8%),

문항평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7점)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총 8문항(예: 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내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Wenzel, Woodyatt와 Hedrick(201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5이었다.

죄책감

본 연구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인느낌질문지(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를 사용하였다. PFQ-2는 Harder와 그의 동료들(Harder & Zelma, 1990)이 개발한 척도로서 국내에서는 심종은과 이영호(2000)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FQ-2는 죄책감을 측정하는 6문항과 수치심을 측정하는 10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6문항(예: 그 사건을 떠올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사건을 떠올리면 강한 죄책감을 느낀다)을 사용하였다. 문항평정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느낀다’(5점)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심종은과 이영호(2000) 연구에서의 죄책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죄책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8이었다.

보상행동

본 연구에서 보상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ullough와 그의 동료들(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이 개발하고

McConnell(2009)이 수정·보완한 보상행동척도(Conciliatory Behaviors Scale)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종호와 김수경(2017)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변안하여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해당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예: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바로 잡거나 보상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 의도를 표현했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평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7점)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박종호와 김수경(201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6이었다.

화해소망

본 연구에서는 Woodyatt와 Wenzel(2014)의 화해소망척도(Desire for Reconciliation)를 사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의 친사회적 행동의 의도를 가늠해보고 피해자와의 화해소망정도를 알아보았다. 본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예: 나는 이 사람과 화해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길 원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동의함’(7점)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소망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전공 연구자 2인이 원문항과 근접해지도록 수정을 거듭하여 변안하였다. Woodyatt와 Wenzel(201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9이었다. 본 척도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요인이 구분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73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lett 검증 결과는 $\chi^2=692.239$ $p<.001$ 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대(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직접 오블리민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하였다. 초기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1개로 나타났다.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Scree 도표, 설명변량, 그리고 해석의 적절성 등을 같이 고려해보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인이해

본 연구에서는 잘못을 한 사람의 타인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해진과 김성희(2013)가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성장척도의 하위구인인 타인이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5문항), 자기수용(6문항), 타인이해(5문항), 타인수용(8문항), 자기개방(6문항), 자기주장(6문항)의 6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36개 문항 중 ‘타인이해’ 5문항(예: 친구의 의견이 나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을 활용하였다. 문항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진과 김성희(2013)의 연구에서의 타인이해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3이었다.

타인신뢰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신 자기개념검사 중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신 자기개념 검사는 김정규(2003)가 ‘문화 영향이 없는 자존감 척도(Culture Free Self-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제작한 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86문항으로 자기 존중감 19문항, 정서안정 16문항, 대인관계능력 16문항, 문제해결능력 17문항, 대인신뢰감 18문항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대인신뢰감 18문항(예: 나는 대체로 사람을 믿는 편이다, 사람들이 내 의견을 존중한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문항평정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6점)에서 까지 리커트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규(2003)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5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 집단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첫째, 각 척도의 신뢰

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응답자들의 정서(죄책감), 인지(책임수용), 행동(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 그리고 대인관계회복(화해소망, 타인이해, 타인신뢰)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성별과 종교유무 그리고 전공에 따라 진정한 자기용서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결측치, 이상치를 점검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분석을 기초로 한 통계 분석이기 때문에 본 분석 전, 연구의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조분석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여 잘못된 저지른 사람의 죄책감, 책임수용과 보상행동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와 대인관계회복(화해소망, 타인이해, 타인신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6개 이상이 되는 진정한 자기용서, 죄책감, 타인신뢰 변인을 3개의 문항꾸러미로 만들어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문항꾸러미는 모형의 간명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일 경우에도 모수추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적합도 지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서영석, 2010; 조현철, 강석후, 2007). 문항꾸러미에는 요인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문항을 요인부하 크기를 기준으로 묶는 방식을 활용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조현철, 강석후, 2007; Little, Gunningham, Shalar, & Widaman, 200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 χ^2/df , 비교적합도지수인 TLI와 CFI, RMSEA를 검토하였다. χ^2 값은 표본 수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제한점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들 중 NFI, TLI, CFI 값은 .90이상일 때 적합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고, .08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본다(우종필, 2015; Hu & Bentler, 1999).

책임수용, 죄책감,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와 대인관계회복(화해소망, 타인이해, 타인신뢰)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핑을 위해 원자료에서 무작위 표집으로 생성된 5,000개의 표본이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상관 및 집단차이 분석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 왜도와 첨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책임수용은 진정한 자기용서($r=.45$, $p<.01$), 보상행동($r=.27$, $p<.01$), 화해소망($r=.39$, $p<.01$)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죄책감은 진정한 자기용서($r=.20$, $p<.01$), 보상행동($r=.12$, $p<.05$),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N=393

변인	1	2	3	4	5	6	7
1. 진정한 자기용서	1						
2. 책임수용	.45**	1					
3. 죄책감	.20**	.08	1				
4. 보상행동	.53**	.27**	.12*	1			
5. 화해소망	.47**	.39**	.07	.41**	1		
6. 타인이해	.21**	.04	.05	.19**	.13**	1	
7. 타인신뢰	.19**	.00	.10*	.27**	.19**	.24**	1
평균	4.54	4.49	3.32	5.11	5.74	4.43	3.96
표준편차	.090	1.04	0.90	1.17	1.20	0.48	0.70
왜도	-0.45	-0.30	-0.25	-0.62	-1.05	-0.48	-0.55
첨도	-0.10	-0.22	-0.60	0.36	0.92	-0.29	0.02

* $p < .05$, ** $p < .01$

타인신뢰($r = .10$, $p < .05$)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r = .53$, $p < .01$), 화해소망($r = .41$, $p < .01$), 타인이해($r = .19$, $p < .01$) 그리고 타인신뢰($r = .27$, $p < .01$)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화해소망은 진정한 자기용서($r = .47$, $p < .01$), 타인이해($r = .13$, $p < .01$)와 타인신뢰($r = .19$, $p < .01$)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타인이해는 진정한 자기용서($r = .21$, $p < .01$), 타인신뢰($r = .24$, $p < .01$)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타인신뢰는 진정한 자기용서($r = .19$, $p < .01$)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West, Finch와 Curran(1995)는 왜도가 2이하 그리고 첨도가 7 이하이면 정규성 가정에 부합 된다고 보았고, 연령을 제외한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의 왜도는 $-1.05 \sim .25$ 그리고 첨도는 $-1.77 \sim .92$ 로 나타나 모든 변인들이 정규성 기준을 만족시켰다.

남녀에 따른 진정한 자기용서 수준의 집단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056 \leq t_s \leq .311$, $p_s > .05$). 종교유무와 전공에 따른 집단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과 Sheffe 사후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종교유무나 전공에 따른 진정한 자기용서 수준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구조모형분석결과

측정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책임수용, 죄책감,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 화해소망, 타인이해와 타인신뢰가 각 잠재변인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모형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N=393

χ^2	df	χ^2/df	TLI	CFI	RMSEA	LO	HI
448.160***	231	1.940	.936	.946	.049	.042	.056
*** $p < .001$							
기준값			$\geq .090$	$\geq .090$	$\leq .08$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393

	측정변인	B	β	S.E.	C.R.
책임수용	책임수용1	1.000	.749	-	-
	책임수용2	1.132	.758	.085	13.255***
	책임수용3	1.459	.797	.107	13.590***
죄책감	죄책감1	1.000	.667	-	-
	죄책감2	1.679	.908	.130	12.945***
	죄책감3	1.441	.784	.110	13.131***
보상행동	보상행동1	.815	.752	.054	14.950***
	보상행동2	1.000	.774	-	-
	보상행동3	.955	.817	.058	16.352***
	보상행동4	.816	.708	.058	13.982***
	보상행동5	.801	.687	.059	13.529***
진정한 자기용서	자기용서1	.785	.667	.077	10.248***
	자기용서2	1.000	.619	-	-
	자기용서3	1.176	.831	.104	11.321***
화해소망	화해소망1	1.413	.872	.150	9.407***
	화해소망2	.943	.655	.112	8.432***
	화해소망3	1.533	.926	.162	9.213***
	화해소망4	1.000	.462	-	-
타인이해	타인이해1	.817	.573	.089	9.213***
	타인이해2	1.000	.747	-	-
	타인이해3	.998	.762	.099	10.058***
타인신뢰	타인신뢰1	1.000	.826	-	-
	타인신뢰2	1.049	.801	.066	15.968***
	타인신뢰3	1.380	.795	.087	15.791***

*** $p < .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 검증에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 448.160(df=231, p<.001)$, TLI = .936, CFI = .946, RMSEA = .049였고, 이는 양호한 적합도 지수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투입된 잠재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회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잠재변인들의 회귀계수 C.R.(Critical Ratio)값이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모든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 내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β)은 .462~.926로 나타나 변수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변인 간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개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뒤 경험하는 책임수용과 죄책감이 보상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용서가 화해소망, 타인이해와 타인신뢰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495.259(df=243, p<.001)$, TLI = .921 CFI = .931, RMSEA = .051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수용($\beta=.39, p<.001$)이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직접 경

로와 책임수용에서 보상행동($\beta=.55, p<.001$)을 거쳐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죄책감($\beta=.09, p>.05$)에서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죄책감($\beta=.13, p<.05$)에서 보상행동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진정한 자기용서에서 화해소망($\beta=.60, p<.001$), 타인이해($\beta=.25, p<.001$) 그리고 타인신뢰($\beta=.46, p<.001$)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수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 없이 단일연구모형을 제안했다. 책임수용과 죄책감에서 보상행동으로 가는 경로와 책임수용에서 진정한 자기용서로 가는 경로는 유의했지만, 죄책감에서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는 사후적 모형 수정방법을 활용해 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측정오차 상관을 설정하지 않았고 표본의 크기가 393개로 사후모형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을 수정하였다(배병렬, 2011). 수정모형 분석결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88.775(df=239, p<.001)$, TLI = .921 CFI = .931, RMSEA = .052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적합도 비교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은 동일한 잠재변수와 관찰변수로 구성되어있으면서 경로가 다른 내재모형(nested model)이므로 두 모형간의 χ^2 차이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두 모형의 차이는 $\Delta\chi^2=3.516, \Delta df=1$ 로 나타났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적합도 분석결과비교

N=393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LO	HI
연구모형	495.259***	243	2.038	.921	.931	.051	.045	.058
수정모형	498.775***	244	2.044	.921	.931	.052	.045	.058

*** $p < .001$

기준값				$\geq .090$	$\geq .090$	$\leq .08$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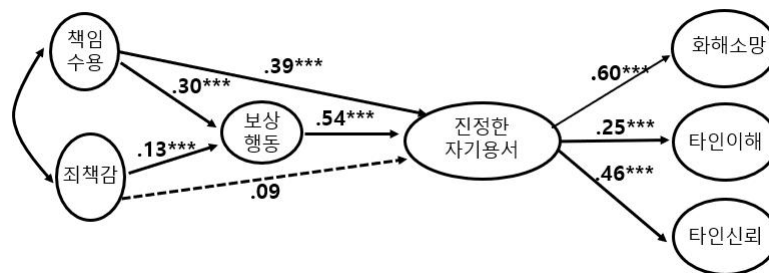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표 5.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

N=393

변수간 경로				간접효과 (β)	총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책임수용	→	보상행동	→ 자기용서 ⁺	.161***	.555***	.082	.238
		보상행동	→ 자기용서 → 화해소망	.331***	.331***	.225	.428
		보상행동	→ 자기용서 → 타인이해	.141**	.141**	.056	.218
		보상행동	→ 자기용서 → 타인신뢰	.255***	.255***	.148	.357
죄책감	→	보상행동	→ 자기용서	.069*	.158**	.006	.130
		보상행동	→ 자기용서 → 화해소망	.094**	.094**	.026	.151
		보상행동	→ 자기용서 → 타인이해	.040**	.040**	.008	.079
		보상행동	→ 자기용서 → 타인신뢰	.073**	.073**	.018	.130
보상행동	→	자기용서	→ 화해소망	.324***	.324***	.221	.406
		자기용서	→ 타인이해	.138**	.138**	.052	.227
		자기용서	→ 타인신뢰	.250***	.250***	.138	.353

+ 자기용서는 진정한 자기용서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자유도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의 임계치인 3.84보다 작아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없었다. χ^2 검증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0). 연구모형에 비해 수정모형은 자유도 1이 증가하였으나 모형 설명력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도가 좋으면서도 간명성이 더 높은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고,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분석

최종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연구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책임수용에서 시작되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책임수용에서 보상행동을 거쳐 진정한 자기용서로의 경로에서 보상행동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고, 보상행동을 거치지 않고 책임수용에서 진정한 자기용서로의 직접경로도 유의하였다. 책임수용에서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를 거쳐 화해소망, 타인이해 그리고 타인신뢰 경로에서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죄책감에서 보상행동을 거쳐 진정한 자기용서에서 이르는 경로에서 보상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했고, 죄책감과 보상행동 간의 직접 경로도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를 거쳐 화해소망, 타인이해 그리고 타인신뢰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

였다. 마지막으로 보상행동에서 시작되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보상행동에서 진정한 자기용서를 거쳐 화해소망, 타인이해 및 타인신뢰에 이르는 경로에서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책임수용과 죄책감은 모두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를 다중매개하여 피해자와의 화해소망, 타인이해와 타인신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책임수용은 보상행동을 매개하여 진정한 자기용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보상행동을 매개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용서를 거쳐 화해소망, 타인이해와 타인신뢰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를 보였다. 죄책감은 보상행동과 진정한 자기용서를 차례로 매개하여 화해소망, 타인이해와 타인신뢰에 간접적 영향만이 유의미한 완전매개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해행동과 관련하여 일련의 인지, 정서, 행동을 거쳐 도달한 진정한 자기용서가 피해자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책임수용과 죄책감은 보상행동을 거쳐 진정한 자기용서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진정한 자기용서는 책임수용, 죄책감, 보상행동 등의 가해 관련 심리·행동적 특성과 피해자와의 화해소망, 타인이해와 타인신뢰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피해자와의 화해소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정한 자기용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망가진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 이전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화해를 소망하도록 돕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Kelley와 Waldron(2005) 연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소통 노력들이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화해소망이나 소통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긍정적 태도나 행동은 피해자의 회복이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Shnabel와 Nadler(2008)가 수행한 가해자의 사과, 피해자와의 화해의지에 관한 실험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듯 가해자의 회복적 노력이 진정한 자기용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타인용서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와 관계없이 치유되는 개인 내적 과정이라면(오영희, 2010), 진정한 자기용서는 가해자의 죄책감 경험, 책임수용과 보상행동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소망하고 도모하는 등 대인관계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치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진정한 자기용서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피해자와 직, 간접적인 상호작

용을 하게 된다.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등 여러 가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진정한 자기용서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행동, 생각 그리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박종효, 김수경, 2017; Gilbert & Woodyatt, 2017). 다시 말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숙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기용서가 가해자 자신의 안녕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McConnell, 2015; Rasbult et al. 2005). 따라서 진정한 자기용서는 가해자의 자기 내적회복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타인을 신뢰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관련 있는데 자기용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그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Kiesler, 1996; Pelucchi et al., 2013, 2015). 이 결과는 주요한 타자 및 일반적 대인관계에서의 신뢰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만을 한정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정한 자기용서는 책임수용, 죄책감, 보상행동의 세 가지 선행요인이 주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김수경, 박종효, 2019; Wenzel et al., 2012; Woodyatt & Wenzel, 2013). 본 연구에서는 책임수용과 죄책감 모두 보상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를 가정하였으나, 연구모형검증을 통해 책임수용은 불완전매개를 보였고 죄책감은 완전매개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인지적 요인이 정서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진정한 자기용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차이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정한 자기용서가 가해자의 자기안위만을 생각하는 심리적 기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진정한 자기용서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Carpenter et al., 2016; Weiner, Graham, Peter, & Zumuidinas, 1991; Woodyatt & Wenzel, 2013). 본 연구는 자기용서가 단순히 가해자의 부정 정서 감소와 안녕감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죄의식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보상행동을 하려는 과정을 거칠 경우, 피해자와 화해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책임을 지려는 성숙한 태도를 갖게 하고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가 침해 받은 경험에서 벗어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자기용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한다는 선행연구(박종효, 김수경, 2017)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 만큼 진정한 자기용서의 유익은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자기용서 연구결과는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규범을 위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하는 학교상담이나 교정상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규범 준수를 위해 폐쇄회로 설치, 상벌제도, 학교지원 경찰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왔다(장규원, 2014). 이러한 제도 활용 이면에는 잘못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징벌적, 응보적 의미가 내포된 경우가 많다. 현재의 학교상담 및 교정상담에서 청소년들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치거나 성인 범죄자들이 이전의 미성숙한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문제해결방식을 가르칠 때, 진정한 자기용서를 중요한 학습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 역시 대학교 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

당한 대우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이수연, 이동훈, 2017). 대학교 상담 센터에서 대인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정한 자기용서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수집한 자기 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한 양적 연구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용서가 대인관계 회복을 이끄는지를 반복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복잡성에 비하여 사례수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추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더 많은 표집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부 측정도구는 국내 타당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정 상황에 대한 귀인과 반응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는 만큼(조궁호, 1996), 자기용서 수준에서도 문화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 연구는 진정한 자기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자기용서

가 피해자와의 화해소망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함으로써 대인관계 회복을 돕는 중요한 대처자원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용서 연구는 상처받고 고통 받는 피해자의 반응에 집중하고 피해자의 상처치유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그에 반해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 이후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Griffin et al., 2016). 가해자의 심리나 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리나 가치를 침해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개입전략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심리적 과정과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적 중재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잘못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성숙한 문제해결이야말로 가해자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대처방법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감 수용, 죄책감과 보상행동은 진정한 자기용서에 이르게 하며 자기용서는 가해자가 잘못을 더 책임감 있게 다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 존중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대인관계 회복을 돕

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잘못된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행동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실천 과정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arpenter et al., 2016; Weiner et al., 1991; Woodyatt & Wenzel, 2013). 진정한 자기용서를 통해 사람들이 상호 반목과 불신 그리고 공격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구, 김광수 (2015). 회복적 생활교육 개입이 학교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43-61.
-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9-33.
- 김수경 (2019). 진정한 자기용서와 자기회복 및 대인관계회복.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 박종효 (2019). 진정한 자기용서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으로서 자기회복의 구조적 관계분석. *인간발달연구*, 26(1), 1-25.
- 김수경, 박종효 (2019). 진정한 자기용서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으로서 자기회복의 구조적 관계분석. *인간발달학회*, 26(1), 1-25.
- 김정규 (2003). *자아가치관 실시 요강*. 서울: 가이던스.
- 박종효 (2012). 한국 성인의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415-432.
- 박종효, 김수경 (2017). 진정한 자기용서에 대한 탐색: 거짓 자기용서와 처벌적 자기용서와의 차별성. *교육심리연구*, 31(4), 589-613.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심종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심혜선, 김지현 (2013). 여성의 수치심, 자기용서와 자살생각-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4(1), 159.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 (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이기쁨, 노혜경 (2018). 경쟁과 협력이 대인각각 비대칭성과 자기각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32(4), 109-132.
- 이수연, 이동훈 (2017). 대학생의 가족 및 타인에 의한 대인외상경험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51-479.
- 이수원 (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 13(1), 129-152.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목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혜진, 김성희 (2013). 대학생용 자기성장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4(1), 609-626.
- 장규원 (2014). 학교문제와 회복적 정의 모델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26), 271-295.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1), 104-139.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목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17(3), 133-153.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len, J. C. (2001).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within an interactional field. *Journal of Socio-Economics*, 30(2), 119-120.
- Amstutz, L. S. & Mulet, J. H. (2005).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이재영 · 정용진 역). 춘천: KAP(Korea Anabaptist Pres).
- Barber, L., Maltby, J., & Macaskill, A. (2005). Angry memories and thoughts of rev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anger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2), 253-262.
- Brown, L. D. & Ashman, D. (1996).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African and Asian cases. *World Development*, 24(9), 1467-1479.
- Carpenter, T. P., Tignor, S. M., Tsang, J. A., & Willett, A. (2016). Dispositional self-forgiveness, guilt-and shame-proneness, and the roles of motivational tendenc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8, 53-61.
- Davis, D. E., Ho, M. Y., Griffin, B. J., Bell, C., Hook, J. N., Van Tongeren, D. R., & Westbrook, C. J. (2015). Forgiving the self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329-335.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2), 107-126.
- Exline, J. J., Root, B. L., Yadavalli, S., Martin, A. M., & Fisher, M. L. (2011). Reparative behaviors and self-forgiveness: Effects of a laboratory-based exercise. *Self and Identity*, 10(1), 101-126.
- Fisher, M. L., & Exline, J. J. (2006). Self-forgiveness versus excusing: The roles of remorse, effort, an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Self and Identity*, 5(2), 127-146.
- Gilbert, P., & Woodyatt, L. (2017). An

- evolutionary approach to shame-based self-criticism, self-forgiveness, and compassion. In Woodyatt L., Worthington, Jr. E., Wenzel M., Griffin B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self-forgiveness*. (pp. 29-41). Cham, Switzerland: Springer.
- Griffin, B. J., Moloney, J. M., Green, J. D., Worthington, Jr. E. L., Cork, B., Tangney, J. P., & Hook, J. N. (2016). Perpetrators' reactions to perceived interpersonal wrongdoing: The associations of guilt and shame with forgiving, punishing, and excusing oneself. *Self and Identity*, 15(6), 650-661.
- Hall, J. H., & Fincham, F. D. (2005). Self 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5), 621-637.
- Hall, J. H., & Fincham, F. D. (2008). The temporal course of self-forgive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2), 174-202.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729-745.
- Holmgren, M. R. (1998). Self-forgiveness and responsible in moral agency.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32(1), 75-91.
- Holmgren, M. R. (2002).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psychotherapy. In Sharon L., Jeffrie. G. M (Eds), *Before forgiving: Cautionary views of forgiveness in psychotherapy*. (pp. 112-13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rowitz, L.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a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lley, D. L., & Waldron, V. R. (2005). An investigation of forgiveness-seeking communication and relational outcomes. *Communication Quarterly*, 53(3), 339-358.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Kramer, R. M., & Carnevale, P. J. (2001). Trust and intergroup negotiation. In R. Brown &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 MA: Blackwell.
- Levy, K. N., & Blatt, S. J. (1999).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Further differentiation within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Psychoanalytic Inquiry*, 19(4), 541-575.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cConnell, J. M. (2009). *Confirming a model of self-forg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McConnell, J. M. (2015). A conceptual-theoretical-empirical framework for self-forgivenes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Basic*

-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7(3), 143-164.
- McConnell, J. M., Dixon, D. N., & Finch, W. H. (2012). Perceived forgiveness from god and self-forgive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31(1), 31-39.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6), 1586-1603.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 Rachel, K.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13). Self-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It matters to both of u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1-10.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15). Self-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2: Impact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Family Science*, 6(1), 181-190.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Karremans, J. C. (2015). Expanding Research on Self-Forgiveness Predictors toward a Dyadic Perspective: The Role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by the Victim. In Eugene L. Olsen (Eds), *Forgiveness: social significance, health impact and psychological effects* (pp. 151-170).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 Ranganathan, A. R., & Todorov, N. (2010). Personality and self-forgiveness: The roles of shame, guilt, empathy and conciliatory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1), 1-22.
- Rasbult, C. E., Hannon, P. A., Stocker, S. L., & Finkel, E. J. (2005). Forgiveness and relational repair. In E. L. Worthington, Jr (Eds), *Handbook of forgiveness*. (pp. 185-206). New York: Routledge.
- Shnabel, N., & Nadler, A. (2008). A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satisfying the differential emotional needs of victim and perpetrator as a key to promoting reconcil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1), 116-132.
- Strelan, P. (2007). Who forgives others, themselves, and situations? The roles of narcissism, guilt, self-esteem, and agreeabl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2), 259-269.
- Tangney, J. P., Boone, A. L., & Dearing, R. (2005). Forgiving the self: Conceptual issues and empirical findings. Worthington, Jr (Eds), *Handbook of forgiveness*. (pp. 143-158). New York: Routledge.
- Weiner, B., Graham, S., Peter, O., & Zmuidinas, M. (1991). Public confession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59(2), 281-312.
- Wenzel, M., Woodyatt, L., & Hedrick, K. (2012). No genuine self-forgiveness without accepting responsibility: Value reaffirmation as a key to maintaining positive self-regar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5), 617-62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In Hoyle, R.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London: SAGE publications.
- Witvliet, C. V. O., Hinman, N. G., Brandt, T., & Exline, J. J. (2011). Responding to our own transgressions: An experimental writing study of repentance, offense rumination, self-justification, and distraction. *Journal of Psychology & Christianity*, 30(3), 223-238.
- Wohl, M. J. A., DeShea, L., & Wahkinney, R. L. (2008). Looking within: Measuring state self-forg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1), 1-10.
- Wohl, M. J., & McLaughlin, K. J. (2014). Self forgivenes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8(8), 422-435.
- Woodyatt, L., & Wenzel, M. (2013). Self-forgiveness and restoration of an offender following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2), 225-259.
- Woodyatt, L., & Wenzel, M. (2014). A needs-based perspective on self-forgiveness: Addressing threat to moral identity as a means of encouraging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restor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0(1), 125-135.
- Zechmeister, J. S., & Romero, C. (2002). Victim and offender accounts of interpersonal conflict: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forgiveness and un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675-686.

1 차원고접수 : 2019. 12. 30.

수정원고접수 : 2020. 03. 08.

최종게재결정 : 2020. 03. 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ransgression and
restoration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university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ediation effects of genuine self-forgiveness**

Kim, Sookyoung

Park, Jonghyo

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empirically to validate a hypothetical research model by which a wrongdoer can restore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genuine self-forgiveness. Participants were 425 college and graduate school students(females:246, males:147)attending K university in Seoul. A series of statistical analyses (i.e. ANOV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with the data from 393 respondents, after subtracting cases where the transgression was not serious or where unfaithful responses were given. The results showed that responsibility acceptance, guilt, and conciliatory behavior affected genuine self-forgiveness and contributed positively to the desire for reconciliation and trust, understanding of others through genuine self-forgiveness. Based on the results, we concluded that self-forgiveness to cope with wrongdoing and mistakes in a positive and healthy manner can contribute to restor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perpetrator. Furthermo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is suggested.

Key words: genuine self-forgiveness, conciliatory behavior, desire for reconciliation, trusting and understanding of others, mediation effect